

제13장 — 왕궁이 피를 삼킨 밤

참사가 끝난 뒤에도, 왕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무너진 벽은 임시 목재로 막혔고, 피가 고였던 바닥은 새벽이 되기 전에 씻겨 내려갔다. 깨진 유리 와 석재 조각은 하인들의 떨리는 손에 의해 치워졌고, 찢겨 나간 커튼은 새 천으로 갈렸다.

의무관들은 피에 젖은 장갑을 몇 번이고 갈아 끼우며 부상자의 숨을 붙들었고, 기록관은 말없이 사망자의 이름과 부상자의 상태를 남겼다.

왕궁은 살아 있는 것처럼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회복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이어지는 경련에 가까웠다.

“사망자 둘.”

의무관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리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말끝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전쟁터도 아닌 왕궁 안에서 사람의 배가 찢기고, 팔이 꺾이고, 다리가 망가졌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중상자 넷. 그중 둘은… 이전의 직무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리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앉아 있지 않았다.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회의실의 창가에 선 채, 두 손을 몸 앞에서 가볍게 모으고 있었다. 왕국의 공주답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표정은 창백했으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보았다. 그녀가 손끝으로 자신의 손등을 아주 미세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손톱이 살을 파고들기 직전까지 눌렀다가, 다시 풀리는 것을.

“배를 다친 하인은...”

의무관이 잠시 말을 골랐다.

“새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피가 목을 막아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리네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가족은.”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항구 아래쪽 세 번째 수로 구역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장례는 조개 의식으로 치릅니다. 왕궁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보상금은 두 배로 지급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개 의식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숨이 아주 잠깐 멎었다. 죽은 자의 이름을 파도에 흘려보내는 의식. 바다의 왕국에서 가장 오래된 애도. 리네는 그 의식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이름들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자신의 손끝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았다.

의무관은 다음 보고를 이어갔다.

“경계 마법 보조 시종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왼팔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마력 폭주에 신경이 탔습니다. 손가락 일부는 움직이겠지만, 정교한 마법 운용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큼니다.”

리네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 시종은 얼마 전까지 회랑 끝에서 그녀에게 고개 숙이며 웃던 아이였다. 성실하고, 조금 어설피고, 조개 문양이 새겨진 마법 장치를 정비할 때마다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 아이. 그런 아이가 이제는 평생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린 시종은.”

“허벅지 근육이 크게 찢겼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걸음은 남을 겁니다. 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남았다.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려야 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온전하게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몸 일부를 잃고 살아남고, 누군가는 잠을 잃고 살아남고, 누군가는 자기 안의 무언가가 죽은 채 살아남는다.

리네는 그 보고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기록해 주세요.”

기록관이 고개를 들었다.

리네는 한 박자 늦게 말을 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공격으로.”
그 말은 왕궁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고라면 복구하면 된다.
공격이라면, 적이 있다.
그리고 적이 있다는 말은 이제 왕국이 더 이상 평
온한 물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에도 하루는 이어졌다.
그 사실이 가장 잔혹했다.
죽은 사람이 있어도 빵집은 문을 열었다. 항구의
어인들은 물자를 옮겼고, 인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아이들을 달래며 노래를 불렀다. 시장의 상인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값을 불렀으며,
어느 수로 구역 작은 식당에서는 누군가의 사무치
는 울음 소리가 하늘을 울렸으며,
사람들은 왕궁 쪽을 볼 때마다 눈을 조금씩 피했
다.

누군가의 죽음은 세상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죽음
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할 일을 남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일을 하며 겨우 버틴다.
그러나 왕국의 평온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
았다.
수로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자리는 비어 있었
다. 인어들은 해가 진 뒤 좀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
지 않았고, 어인들은 짐을 나르면서도 자꾸 왕궁
쪽을 돌아보았다. 조개 문양이 새겨진 기둥들은 여
전히 하얗게 빛났지만, 사람들은 그 옆에 보름달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멀찍이 돌아갔

다.

소문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왕궁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달빛이 피 위에 떠 있었다더라.”

“공주님이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입 조심해. 그런 말 했다가 끌려가면 어쩌려고.”

“근데 틀린 말이야? 조개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

럼 왜 왕궁 안에서 사람이 죽어?”

그 말들은 바람처럼 흘러다녔다.

리네도 들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왕좌에 앉아 회의를 주재할 때도, 창밖으로 보이는

수로를 바라볼 때도, 하인이 차를 내려놓고 물러날

때도,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삼키는 말을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탓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은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과 의심은 너무 가까운 감정이라, 오래 붙어 있으면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리네는 점점 더 짧게 말했다.

“요점만.”

“다음.”

“그 보고는 나중에.”

“지금 필요한 건 결론입니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무례하지 않았다. 공주로서의 품위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알았다.

말끝마다 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날

은 남을 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세운 것이라는 것도. 당신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더 몰아붙였다. 그녀가 저렇게 버티는 건, 당신이 충분히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짧아지는 건, 당신이 더 빠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건, 당신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충성이라 불렀다.

훈련장은 다시 피 냄새를 품었다. 공식 훈련이 끝난 뒤에도 당신은 남았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는데도 몸은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고, 구르고, 일어나고, 찌르고, 다시 물러서고, 다시 들어갔다. 손바닥의 굳은살은 두꺼워졌지만, 그 아래 살이 계속 찢어졌다. 피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항상 조금씩 배어 나왔다. 그게 더 지독했다.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입술은 말라 터졌다. 피가 맺히면 혀끝으로 훔쳤고, 곧 다시 터졌다. 물을 마셔도 목은 계속 말랐다. 잠이 줄어들자 눈 밑은 더 깊어졌고, 얼굴은 조금씩 깎여 나갔다. 누군가 놓고 간 식사는 자주 식은 채 남았다. 몸은 아직 움직였지만, 그것은 건 강한 힘이 아니라 억지로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이었다.

남자 단원은 그 꼴을 보고 낮게 욕했다.
“아, 진짜. 그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는 물병을 당신 쪽으로 던지듯 밀어놓았다.
말투는 통명스러웠지만, 병뚜껑은 미리 살짝 풀려 있었다.
“이게 왜 남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남기고. 너 몸이 무슨 장식품이냐?”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당신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래 머물면 진심이 들킬까 봐 그러는 사람처럼.

여성 단원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훈련장 한쪽에 무릎 보호대를 내려 놓고, 당신이 보지 않는 척하는 방향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먹어.”
당신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쓰러지면... 지킬 수도 없어.”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피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큰누나가 동생을 달래듯 조용하면서도, 전장에 선 사람이 전장에 선 사람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말.

당신은 조금 먹었다.
아주 조금.
그녀가 끝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술 감독은 훈련장 가장자리에 서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엔 다가오지 않았다.
말리지도 않았다.
이전처럼 낮은 목소리로 꾸짖지도 않았다.
이미 한 번 말했다.
망가졌다고.
칼을 쥐는 게 아니라 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자는 끝내 적보다 먼저
무너진다고.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에 검술 감독이 한 일은 단 하나였다.
그는 당신이 세 번째로 비틀거렸을 때,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훈련장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붕대를
바라보았다.
“……듣지 않는군.”

그 말은 당신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듯 흘린 말이었다.
남자 단원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감독님,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술 감독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팔은 이미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발목은 한
번씩 무게를 잃었으며,
숨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 끝은
계속 앞으로 향했다.
무너지는 몸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억지로 서 있는 모습이였다.
마침내 검술 감독이 낮게 말했다.
“말린다고 멈출 상태가 아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였다.

그러나 그 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다.
“지금 저 아이는 훈련하는 게 아니다.”
잠시 침묵.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
남자 단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검술 감독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저 끝까지 지켜보았다.
사람이 스스로를 부수는 장면을,
검을 가르친 자로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듯이.

반란은 비가 오지 않는 밤에 시작되었다.

처음 폭음은 동문 쪽에서 났다.

왕궁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기둥에 새겨진 조개 문양 위로 먼지가 떨어졌다. 처음엔 모두가 결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그런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폭음은 훨씬 가까웠고, 세 번째 폭음 뒤에는 분명히 사람의 비명이 따라왔다.

“동문이 뚫렸다!”

“아니, 안쪽이야! 안쪽에서 터졌어!”

“비전투 인원 대피시켜!”

“공주님은 어디 계셔!”

혼란은 순식간에 왕궁을 삼켰다.

문제는 적이 바깥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일부는 이미 왕궁 안에 있었다. 보급 인력처럼 움직이던 자, 하인복을 입은 자, 경계 교대 명단에 섞여 있던 자,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자들. 누가 언제부터 적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고, 그 의심이 반란을 더 빠르게 키웠다.

리네는 회의실에서 일어섰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바로 명령을 찾았다.

“중앙 수로 봉쇄.”

“비전투 인원은 아래 수로로 대피.”

“왕좌 회랑과 동문 사이를 끊어. 반란군이 안쪽으

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녀는 여전히 여왕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뒤에 섰다.
명령을 듣기 전부터.
몸이 이미 그 자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리네의 앞이 아니라, 리네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위치.
그것이 당신의 전부였다.

왕좌 회랑은 곧 전장이 되었다.
하얀 석재 바닥에는 바닷물이 얇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양옆의 기둥에는 조개 문양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원래 그곳은 왕국의 평온과 권위를 보여주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 밤, 회랑의 물은 피와 섞였고, 조개 문양은 깨진 등불의 그림자 속에서 어둡게 가라앉았다.
반란군은 열 명이 넘었다.

처음에는 여섯, 다음에는 네 명, 그 뒤에 또 다섯. 좁은 회랑이 아니었다면 그 숫자는 당신을 곧장 압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회랑은 길고, 폭은 제한되어 있었다. 동시에 덤벼드는 숫자는 한정된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는 리네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첫 번째 칼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당신은 몸 전체를 피하지 않았다. 고개만 돌렸다. 칼날이 뺨을 스쳤고, 얇은 피가 흘렀다. 스치는 통증이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검은 이미 상대의 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손목의 힘줄이 끊기자 칼이 떨어졌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그 비명을 듣지 않았다. 무릎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리고, 쓰러지는 몸을 밀어 뒤따라오던 자의 길을 막았다.

두 번째는 창이었다.

피하기엔 늦었다.

창끝이 곧장 당신의 가슴 아래를 노렸다. 당신은 팔을 들어 막았다. 살이 찢겼고, 창끝이 팔뚝 바깥쪽을 깊게 파고들었다. 뜨거운 통증이 어깨까지 번졌다. 그러나 뼈는 버텼다. 당신은 그 창대를 잡았다. 손바닥의 상처가 다시 터졌다. 창대를 당겼다. 상대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끌려왔다. 그 순간 당신은 머리를 숙여 그의 턱 아래로 파고들었고, 검자루로 목을 찍었다. 숨이 막힌 몸이 무너졌다. 당신은 그 몸을 그대로 옆으로 밀어, 날아오던 다른 칼을 막는 방패로 썼다.

피가 튀었다.

당신의 피인지, 적의 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들어왔다.

한 명은 위에서, 한 명은 아래에서. 당신은 허리를 낮췄다. 위에서 날아온 칼이 머리 위를 지나가며 머리카락 몇 올을 잘랐다. 아래쪽 칼은 피하기엔 너무 가까웠다. 당신은 무릎을 틀어 각도를 바꿨고, 칼날이 허벅지 바깥을 길게 찢고 지나갔다.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 힘 빠

짐을 이용해 몸을 더 낮게 떨어뜨렸다. 낮아진 위치에서 검이 반원을 그렸다. 발목. 정강이. 무릎 뒤. 차례로 무너졌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반란군 하나가 욕설을 내뿜었다.

“괴물 같은 새끼가—”

말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그에게 달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자기 편이 있었다. 좁은 회랑은 도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의 목살을 잡아 끌어당겼고, 뒤에서 날아오던 칼이 그의 어깨를 찔렀다. 그는 자기 편이 칼에 맞고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그 비명과 함께 몸을 돌려, 그를 방패처럼 세웠다. 칼 두 개가 그 몸에 박혔다. 반란군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이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움직였다.

한 사람의 목 아래를 베고, 다른 사람의 팔꿈치를 부셨다. 세 번째는 가슴을 찔렀다. 그는 검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당신은 검을 비틀어 몸을 돌렸다. 소리가 났다. 살과 금속과 뼈가 뒤섞여 내는 낮은 소리. 그는 그대로 무너졌다.

당신도 무너질 뻔했다.

옆구리가 찔어졌다. 누군가의 단검이었다. 알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상처가 벌어졌고, 피가 옷 안쪽으로 뜨겁게 흘렀다. 어깨는 무거웠고, 팔뚝은 창에 찔린 통증으로 감각이 둔해졌다. 발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시야 가장

자리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는 리네가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통증보다 컸다.
반란군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당신은 오직 리네에게 달는 길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목적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싸운다. 죽지 않기 위해, 이기기 위해, 명령을 따르기 위해, 후퇴할 길을 남기기 위해.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리네에게 달느냐, 달지 못하느냐.
그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잔혹해졌다.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씩 확실히 지워갔다.
손목을 끊고, 무릎을 부수고, 숨을 막고, 검을 빼앗고, 몸을 방패로 쓰고, 떨어진 칼을 발로 차 회랑 밖으로 밀어냈다.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려 하면 발로 손을 짓밟았다. 비명은 짧게 끊었다.
움직일 가능성을 남기지 않았다.

열 명째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처음의 자

세가 아니었다.
어깨는 한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팔뚝은 창에 찢겨 검을 쥐는 손까지 피가 내려왔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의 상처는 턱까지 피를 흘
렸다. 숨은 거칠어졌지만, 소리는 작았다. 파도처
럼. 멀리서 보면 조용하지만, 가까이 닿으면 모든
것을 깎아내는 파도처럼.
마지막 무리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곧 패배였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

한 명은 뒤로 물러나려다 넘어졌고, 다른 한 명은
겁에 질려 검을 너무 크게 휘둘렀다. 당신은 그 칼
날을 고개만 기울여 피하고, 몸을 안쪽으로 집어넣
어 그의 갈비뼈 아래를 찌었다. 공기가 빠지는 소
리가 났다. 또 한 명이 당신의 뒤를 노렸지만, 당
신은 쓰러진 몸 하나를 발로 밀어 경로를 막았다.
그 짧은 지연 사이에 몸을 돌렸다. 칼이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는 결국 칼을 떨어뜨렸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못했다.
한 걸음 다가갔다.
“그만!”
누군가 외쳤다.
남자 단원의 목소리였다.
“야, 그만하라고!”
여성 단원이 더 가까이서 외쳤다.

“멈춰! 이미 끝났어!”

그 말이 당신에게 닿기까지 한 박자 늦었다.
당신의 칼끝은 이미 상대의 목 앞에 멈춰 있었다.
정말 가까웠다. 살을 찢기 직전. 마지막으로 서 있던 반란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도 못 내고
떨고 있었다.

당신은 그제야 숨을 들이켰다.
전투가 끝났다는 사실을, 몸이 아주 늦게 이해했다.

회랑은 참혹했다.

물이 흘러야 할 얇은 수로에는 피가 섞여 있었다.
조개 문양은 흙과 피와 깨진 유리 가루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쓰러진 반란군들은 신음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왕좌로 이어지는 길은 지켜졌다.
하지만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누구도 온전히
사람처럼 보지 못했다.

리네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안도였다.

살아 있다.

당신이 살아 있다.

자신도 살아 있다.

왕좌 회랑은 지켜졌다.

그 안도가 가장 먼저 왔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더 깊고 무거운 감정이 따라
왔다.

두려움.

반란군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달의 왕국이 무서운 것도 아니었다.
지금 리네가 가장 두려운 것은, 당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의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었고, 손등에는 새 상처와 오래된 흉터
가 겹쳐 있었다. 옷은 피와 땀과 먼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팔뚝의 찢긴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다. 다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
신은 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리네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 당신을 떠올렸다.
뒷골목에서 발견했던 그날의 당신.

상처투성이였지만, 아직은 살아남으려는 눈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경계했지만, 세상을 완전히 버린
눈은 아니었다.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었고, ‘이름
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 있는 사
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없애는 사람처럼 보
였다.

리네의 목 안쪽이 막혔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만하라고 해야 할까.
어느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그녀를 지켰다.
분명 지켰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당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

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리네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회랑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피에 젖은 젊은 기사가 떨리는 숨으로 중얼거렸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기 검을 바라보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반란군보다... 저 사람이.”

조금 떨어진 곳, 창상을 붙잡고 앉아 있던 노병 하나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잠깐 침묵.

“...근데.”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부상자를 옮기던 여성 단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만해.”

짧은 말이었다.

“들리잖아.”

누군가 씩씩하게 웃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솔직히 다들 같은 생각 하고 있잖아.”

그때 남자 단원이 낮게 욕을 씹어 뱉었다.

“야,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 찢어 버리기 전에”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다시 침묵.

젊은 기사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 상태 계속 두면... 언젠가 진짜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노병이 리네와 당신을 번갈아 보았다.

“...공주님도 알고 계시겠지.”

그 목소리는 낮고 높어 있었다.

“문제는...”

그는 피 묻은 바닥을 보았다가, 당신을 보았다.

“...알면서도 못 자른다는 거다.”

리네는 그 말을 들었다.

모두 들었다.

그러나 반박하지 못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부터.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구를 데려갈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빼앗아갈지 리네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한 가지만 알았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릴 만큼 아팠다.

반란은 끝났다.

왕궁은 살아남았다.

당신은 리네를 지켜냈다.

그러나 그날 밤,

누구도 승리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왕좌 회랑의 조개 문양 위로 피가 얇게 번져 있었고, 깨진 수정등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그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바다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물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왕궁이, 방금 삼킨 피를 어떻게든 흘려보내려 애쓰는 소리처럼 들렸다.